

데스크 시각



최재호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싼 산업은행과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 간 갈등이 '키친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해외 매각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은 매각의 1차 걸림돌인 상표권 문제를 풀기 위해 박 회장을 압박한다. 하지만 우선매수권 행사 포기로 한발 물러났던 박 회장은 상표권 사용 불허로 반전을 모색하며 요지부동이다. 이에 맞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과 경영권 및 우선매수권 박탈을 경고하는 등 으름장을 놓으며 박 회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채권단의 의지다. 채권단은 최근 채권단 안을 박삼구 회장이 거절할 경우 특단의 조치를 운운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호남 대표적 기업인 금호타이어에 대한 정치권이나 재계 및 지역의 여론이나 배려는 안중에도 없다. 정치권은 물론 재계는 채권단의 이러한 강경 일변도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매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안 된다

각 금액보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문제 등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매각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 셈이다.

우려되는 핵심 기술 유출

광주·전남권 정치권이나 경제계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절차적 부당성, 고용 안정 문제, 기술 해외 유출, 더블스타의 재무건전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여론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어 이를 염려하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것은 또다시 중국에 국가 기간 산업을 넘기는 것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30%의 업체로 기술력이 뛰어난 알짜 기업이자 방산업체다. 이런 기업을 중국에 넘기는 것은 한국 타이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채권단은 명심해야 한다.

물론 구조조정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산업은행의 딱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대우조선, STX 해양조선, 한진해운 등 조선·해운 구조조정 여파로 3조6411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이는 1998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다. 이런 상황에서 금호타이어 세 주인 찾아 주

기마저 실패하면 산은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금호타이어의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산은에 직격탄이 될 수 될 수 있어 조기 매각하려는 성급함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앞가림만 하려는 산업은행은 최근 핵심기술 보유 기업 지키기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바메모리 매각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 등 아시아 기업에 도시바메모리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혀 왔다. 자국의 첨단설비와 기술을 경쟁국에 넘길 수 없다는 이유다.

도시바메모리에서 배워라

이처럼 인수합병 시장에서 인수 기업의 국적을 중요시하는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일관되게 금호타이어를 중국에 팔아야 한다는 산은의 입장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한국기업들을 전방위로 배제하고 있다.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과 수입 제한 등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중국은 한국을 괴롭히는데 산은은 중국기업에 팔지 못해 안달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금호타이어가 보유하고 은 900여 개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부터 해소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더블스타가 인수할 능력이 있는지 인수 이후 제대로 성장시킬 역량 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매출 규모가 금호타이어의 5분의1 수준인 더블스타가 과연 금호타이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냐는 기본적 질문에도 묵묵부답이다. 더욱이 더블스타는 인수대금 9550억 원 가운데 나머지 부족한 7200억 원을 중국 금융권에서 대출받겠다고 밝혔다. 연간 이지만 수백억 원에 달해 은행돈으로 인수할 경우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다. 일본 정부와 은행은 도시바를 팔면서 기술 보호와 기업 국적을 중시했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중국에 매각만이 최선이라는 주장이니 일본과는 너무나도 비교된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방산 기술 유출을 막으면서 한국기업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더블스타에 매각이 성사됐을 경우 중국이 우리의 알짜 기술만 속 빼먹고 버리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묻고 싶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다. 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런 일에 앞장서서 매각을 부르짚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더블스타의 인수컨소시엄은 허용하고 박삼구 회장은 배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박 회장은 개인 돈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실상 박 회장을 배제하려는 태도다. 특히 그동안 박삼구 회장과 원만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 왔던 산은이 금호타이어 인수 문제에서 유독 편향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외면하고 일급 회수라는 자기 앞가림과 원론적 명제에 몰입해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은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 lion@kwangju.co.kr

社說

‘호남 출신 중용’ 실무진 인사도 기대된다

최근 완료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특징은 지역 안배와 관료·교수·시민단체 출신 및 여성의 중용, 그리고 고시 출신 쇠퇴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호남 출신의 약진이다. 청와대와 내각 차관급 이상 79명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15명)과 전북(7명)을 합한 호남권이 22명(27.8%)으로 대구·경북(10명)과 부산·경남(17명)을 합친 영남 출신(27명·34.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특히 인선 초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출신이 대거 중용돼 변화를 실감케 했다. 발표할 때마다 호남 출신이 1~2명씩 포함되니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어제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광주 출신 문무일 부산고 검장을 지명했다. 문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종민 전 총장 이후 12년 만에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 탄생한다. 이번 인선은 박삼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무안 출신인 만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모두 호남 출신이 차지하게 된다는 점

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역 안배를 뛰어넘는 파격적 선택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 올해 대선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 ‘호남 홀대론’으로 충격을 지쳤다. 올 대선 유세 기간에는 호남을 찾을 때마다 “호남의 한 풀어 줄 사람 누구니까”라고 반문하며 호남 소외를 끝낼 적임자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그랬던 그가 집권한 뒤 보란 듯이 호남 인사를 대거 중용하면서 진정성을 보여 자 호남인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정 수행 지지율로 화답하며 기대를 보내고 있다.

이제 이러한 ‘호남 출신 중용’ 기조가 후속 실무진 인사에서도 이어져 정부 부처의 실무 핵심 보직에 광주·전남의 능력 있는 인재가 지속적으로 발탁되기를 바란다. 장·차관과 함께 국가정책의 결정·집행 주체인 1·2급 고위공직자를 특정 지역 출신이 장기간 독점하면서 기반시설과 예산 등에서 불균형이 심화하고 인맥 자체가 끊긴 처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쌓여 온 ‘인사 적폐’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농어촌, 미세먼지 대책까지 차별받아서야

농어촌의 소외와 차별은 교육·행정·문화 등 모든 분야가 도시에 집중된 탓에 발생한 한국병이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대책에서도 농어촌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의 경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호장치기 100% 설치됐지만, 229개 시·군·구 가운데 81개 농어촌 지역에는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다. 전남 지역의 경우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2기)·여수(5기)·순천(4기)·광양(4기)·영암(1기) 등 5개 지역에만 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설치돼 있고,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측정 장치가 없어 미설치율(77.3%)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7대 대도시나 산업도시 등 인구

와 공해 유발 시설이 집중된 곳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공기의 질이 좋다는 어설픈 생각으로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세먼지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구 고령화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사안일한 행정이라 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대기 흐름에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더욱이 농어촌의 인구 대다수가 고령이어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세먼지는 농어민의 건강·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측정 장치 설치에 도농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은편칼럼

남아시아서 주목받는 한국학, 한국어

에서 상당기간 교수생활을 하였다. 한국 역사에 대한 지식 창조와 해외에 보급한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에는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다.

과학과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국의 과학과 기술 발전’, ‘남한의 중공업과 화학 공업을 통한 산업화’, 그리고 ‘남한의 경제발전’을 다루었고 필자는 ‘한국의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문화 부문에서는 영화와 방송 드라마를 통한 한국 문화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60년대 한국영화에 나타난 가족관계’에서는 김승호 씨가 주연한 여러 영화들, 특히 데뷔작이었던 ‘자유만세’를 위시하여 ‘로맨스 파파’, ‘박사방’ 등의 줄거리를 통하여 가족 관계를 소개하였다. 까마득히 있고 있었던 반세기 전의 포스터들을 보면서, 또 ‘국제시장’을 통하여 보인 한국 사회상에서는 본인의 가지지 않은 한국을 반추하면서, 외국인이나 다른 외국인들에게 설명하는 우리 영화이야기는 형용하기 어려운 감격으로 다가왔다.

문학 분야에서는 인도 델리대학의 라메쉬(Divik Ramesh)교수가 ‘타고르 : 한국인을 위한 절망 속의 희망의 노래’를 발표하였다. 학술대회 초록집에는 그의 발표논문 전문이 실려 있어서 타고르의 한국을 위한 두 편의 시, ‘폐자의 노래’와 ‘동방의 등불’을 여러 번 읽고 새삼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타고르의 영향을 받은 한국 작가들로 한용운, 이광수, 방정환, 윤석중 등을 소개하고 특히 동시 작가인 석동 윤석중의 ‘세계 지도’ 전문을 소개하였다.

언어와 문화 부문에서 ‘한국인들의 미지각’ 발표자는 한국여성들이 선호하는 미의 관점, 성형 열풍과 의료관광에 대한 연구내용을 보고하면서 이는 태극, 인도,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어린 여중생도 성형을 하는 거 의 대중화된 성형 문화는 예쁜 얼굴이 취업과 결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는 한국의 경제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하다고 했다. 한 청중은 한국어에서는 유교의 영향으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

하기 때문에 성형이 성행한다는 문헌을 읽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카트만두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코이카의 심은지 봉사단원은 ‘한국어와 네팔어의 비슷한 점과 차이 비교’라는 발표를 하였다. 네팔어에는 우리말과 달리 남,여 성과 대상에 따른 어미 변화가 있고 네팔인들은 우리말의 토씨를 어려워한다. 그러나 어순이 같고 많은 음이 비슷하여 거의 모든 네팔어는 우리말로 표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어떤 한인 선교사가 네팔어를 소리 나는 대로 우리말로 정리한 284 쪽으로 된 사전은 나의 네 팔어 학습에 큰 도움을 준다.

본 학회에서 연사들이 영어나 네팔어를 쓰지만 몇 외국인인 한글로 만든 자료들을 유창한 우리말로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남아시아에서 한국학과 한국어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에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런 국제학술 대회는 헌신적인 사람이다. 부모님은 이 글지를 가지게 했으며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행순 카트만두대 객원교수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 지원단

지난 6월에 카트만두 대학교에서 ‘남아시아의 한국학 동향’(Emerging Trends in Korean Studies in South Asia)이라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인도 네루 대학교의 한국학 센터가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로서 총 다섯 분야에 18명이 발표하는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연사들은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며 한국의 과학기술, 경제, 언어, 문화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다. 인도 Nalanda대학의 모한(Pankaj Mohan) 교수는 ‘불교와 신라의 공공복지’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표를 하였다. 이분은 동아시아의 언어와 역사 분야의 권위자이며 한국 고대사를 전공했고 한국

기 고

효행도 연습이 필요해요



조귀임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둘이 드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가. 매년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이 만만치 않고 힘겹고 지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해주는 아이들의 기특함에 피로를 잊고 힘이 솟는다.

어느 날, 두 녀석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잠시 후 싱크대 주변 바닥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한강이 되었다. 뒤처리에 진땀을 뺐다. 또, 하루는 남동생 바지를 뺀다고 배란다 바닥에 세제를 듬뿍 부어서 그걸 씻어내느라 어깨가 빠질 뻔했다. 일은 저절렸어도 할머니를 돕겠다는 효심이 기특하고 가늠하지 않은가. 지금은 비록 서툴고 미숙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쳐서 손이 아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효행도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교사시절, 저학년들을 담임하면서 효행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행해 왔다. 요즘 학교에서는 학교 행사로 효 실천사례 발표대회나 주말 효행일기 쓰기가 보편화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교사의 재량이였다. 주말이면 효행을 실천하고 주제에 맞는 효행일기를 써오도록 과제를 내주고 부모님께 확인을 받아오도록 했다. 효행일

기애다 일일이 댓글을 달아주어 칭찬과 사랑을 북돋아 주었더니 효과만점이었다. 아이들의 효행이 눈에 띄게 달라져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글썩썩나 글씨 또한 날로 달라져갔다. 여러 엄마가 아이들의 효행이 담긴 소중한 일기장을 시집, 장가갈 때까지 보물 1호로 간직하겠다고. 대부분 아이 역시 효행을 실천하고 부모님께 칭찬받으니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더욱더 효행하겠다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주 지적당하거나 꾸중 들었던 일 중 하나로 친구들이랑 놀려고 조급한 마음에 책가방을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휘 잡아 던지고 나간 일, 양말을 거꾸로 뒤집어진 채로 여기 한 짝 저기 한 짝 벗어 놓는 일 등은 사소한 일 같지만 나쁜 습관으로 인해 자기는 물론 가족이나 남에게도 불편을 주거나 피해를 준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지 않던가. 아빠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놓는 일, 설거지나 청소도 하고 동생이랑 놀아 주는 일 또한 사소한 일 같지만 시작이 절반이라 말이 있듯이 바른 행동 착한 행동이 바로 효행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대를 떠올려보면 아이들에게 지

리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효행을 연습하고 실천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자긍심도 느끼고 보람으로 여긴다.

다음 글은 아이들에게 귀에 혹이 붙도록 들려준 이야기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햇빛이나 공기의 고마움을 알지 못하듯이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은 아닐까. 부모님의 사랑은 놓아 주시고 길러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고 모든 정성을 자식에게 바치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헌신적인 사람이다. 부모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며, 그 지극한 사랑은 천만금을 주어도 얻지 못할 것이다. 효도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을 말한다. 효도는 쉽고, 가깝고,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면 된다. 자기 할 일은 다하고, 부지런하며, 예절 바르고 항상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드리면 효가 된다.

효행이야말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 뿐더러 모두가 행복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욕시 마음속으로만 효도를 생각했다면 바로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떻게

**無 等 鼓**

자녀들의 남녀 성비를 빚든 우스갯소리가 있다. 딸 둘이면 ‘금메달’, 아들 둘이면 명석이면 ‘은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이라고 한다. 그만큼 아들 키우기가 힘들고 예전과 달리 남녀 차별이 없는데도 딸이 오히려 효도를 하는 세대를 반영한 말이다.

이는 활발해지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73.5%로 남학생(66.3%)

성 최초의 총경 승진으로 당시 언론은 우리 천장을 깬다며 대서특필했다. 1970년 광주 광산사에서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한 김 총경은 미아리 텍사스 집삼촌 단속으로 ‘미아리 포청천’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조각(細網)을 마친 문재인 정부는 18명의 장관 중 4명을 여성으로 임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첫 여성 외교수장이자 비고시 출신 최초라는 기록을 세웠고 처절하게 우리 천장을 깬 권력 있는 피우진 보훈처장은 단연 화제가 됐다. 피 처장은 군 복무 중 유행한 수술을 이유로 퇴역 명령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 여성에게 불리한 군 복무 규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전남에서도 우리 천장을 깬 공무원이 나왔다. 4월차 전남도 인사에서 신현숙 부이사관(3급)이 광양시 부시장에 임명됐다. 전남 최초의 여성 부시장으로 공직 입문 40년 만에 이룬 성과다. 그녀는 “우리 천장을 깬다기보다 얇게 하는데 일조했다”며 겸손해 했지만 고도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여성 시장이나 군수가 나올 때도 된 것 아닌가.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우리천장 깨기**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b>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지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